

2023년 1월 1일

제 31호

동북아역사 리포트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강인욱(경희대학교 교수)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외교와 정치관계의 경색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 학술, 문화 교류에 큰 장애가 발생했다. 전쟁과 관련하여 수많은 제재가 가해지면서 다양한 학술교류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 와중에 예상치 않게 북방에 숨어있는 우리 역사의 연구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바로 러시아 연해주와 극동지역에 있는 위치안 옥저와 읍루에서 발해로 이어지는 고대사와 근대 고려인의 숨결과 독립운동의 근현대사이다. 길어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속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현장을 생각해보자.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강인욱(경희대학교 교수)

우리 역사속의 러시아

흔히 ‘소련’이나 ‘러시아’라는 말로 우리는 북방의 거대한 땅을 뭉뚱그려서 표현한다. 하지만 시간대만 10시간에 이르는 그 거대한 지역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강력한 군사력과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모스크바의 러시아’이다. 이 패권으로서의 러시아는 물리적인 충돌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정통을 주장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와는 키예프 루시(키이우 루시)로 대표되는 ‘슬라브’ 국가의 시작과 유라시아 초원 기마문화를 대표하는 ‘스키타이족’(전체 유라시아의 기마문화인 스키타-시베리아문화권이 아니라 그리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흑해 연안의 집단을 의미함)의 원류를 두고 대립해왔다.

하지만, 넓은 러시아의 영토에서 슬라브의 기원을 두고 대립하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에 우랄 산맥 동쪽의 광활한 시베리아와 태평양연안의 극동지역은 슬라브인들과 전혀 관계없는 유라시아와 초원과 동아시아 역사의 일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북쪽을 차지하는 극동지역은 우리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지역이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러시아’는 다 비슷하다고 오해하지만, 바로 한반도의 북쪽인 러시아는 고대 이래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현대 주권으로서의 러시아 영토”와는 별도로 지금은 러시아의 땅이 되어버린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는 매우 넓다. 우리 역사 속 북방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시베리아’라고 하면 유형지나 추운 동토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동토지대는 북극권 일대이며, 시베리아의 남부는 고대 유라시아 초원이 이어지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로 동서양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고고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고고학에 주목했다. 북방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연결고리를 잇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만주의 북쪽인 시베리아와 극동의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고고학은 시베리아, 몽골, 연해주 등에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그 저변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관심은 2000년부터 공동작업으로 구체화되었다. 한국과 러시아의 발굴조사로 아무르강 유역

의 수추섬에서 발굴된 육천년 전의 유물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연해주 일대에서는 읍루와 옥저에서 시작해서 발해로 이어지는 다양한 자료가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속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고대사의 여러 부분에서 현재 러시아의 영토인 극동지역에서 찾아낸 우리 역사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다. 현대 국경으로는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지금과 같은 국경이 없었던 고대에 두만강 바로 건너편의 땅에 우리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200년에 이르는 러시아의 한국역사 사랑

고조선에서 옥저, 발해로 이어지는 북방속의 우리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하게 연해주 속의 우리 역사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왔다. 동북공정은 한국의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절박한 역사문제였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 절박함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힌 한·중간의 역사 갈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목소리로는 한계가 크다.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국에 전문가가 포진해서 우리의 역사적 맥락을 차분하게 그들의 언어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방의 경우 동방학이 오랜 기간 지나치게 중국 위주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알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국사나 한국학의 전문가들은 흔히 EALC(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라 통칭되는 미국 여러 대학의 "동아시아학부"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동아시아학부 전임교원은 중국 전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일본 전공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역사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 우리의 바램과 달리 한국의 입장을 공감하고 함께 할 나라나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한 한국의 역사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정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만주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한국이 비교할 수 없는 중국의 거대한 공세에 한국의 대응은 무척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구 사회주의권에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분쟁에서 한국에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 그 배경에는 제3자로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이 된 것이 바로 러시아의 동방학자들이었다. 중국의 바램(?)과 달리 러시아는 일관되게 한국과 만주의 독자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워놓은 역사 체계는 소련시절의 영향력에 기반하여 구 사회주의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역사인식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17세기의 러시아와 청나라의 충돌 이후 북경교회사절단(1716~1855)의 일원으로 활동한 러시아 동방학의 태두 안키프 비추린(N.Ya.Bichurin 1777-1853)의 활동부터이다. 북경교회사절단은 나선정벌로 유명한 러시아-청나라의 전쟁 이후 중국으로 넘어온 러시아계(=알바진인)들의 종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러시아 정교회 신부단을 말한다. 비추린은

1808-1820년간 중국에서 복무하며 한국 고대사 관련한 문헌을 비롯하여 중국의 다양한 역사를 번역했다. 비추린 신부의 주요한 관심은 중원이 아니라 몽골, 티베트, 만주, 한국 등 중원의 북쪽 변방이었다. 그는 중원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변의 민족들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비추린은 북경 체재 당시에 인접한 옥하관에서 머물던 한국 사신들과 매우 활발한 교류를 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으며 젊은 시절의 조인영과¹⁾ 서신을 주고받은 흔적마저 남아있다.

비추린의 엄청난 번역은 당시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중국과 한국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달리 한국과 중국에 접경한 나라였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유라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럽과 차별화되었던 동아시아관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를 중국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별도로 존재한 역사였다는 인식이 확립된 배경으로 이어졌다. 비추린의 한국사에 대한 이해는 1851년에 출판된 기념비적인 저작 “고대동북아시아 민족자료집” 3권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흔히 ‘동이’로 통칭되는 한국과 만주의 역사를 중국사와 분리했다. 그리고 그의 전통은 제정러시아를 거쳐서 소련으로도 이어졌다.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던 사회주의권의 동방학에서는 그들의 역사관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만주와 한반도는 고대부터 중원과 다른 문화권이며 고조선에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고대 국가의 기반이 되었다는 지극히 당연한 견해가 정설로 되었다.



〈그림 1〉 비추린 신부 초상화



〈그림2〉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비추린 신부의 역사 관련 미간행 원고

1) 조인영(1782-1850, 헌종 연간에 영의정을 지냄)

고조선과 유.엠.부짚

비추린이 세워놓은 한국 고대사의 체계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자가 뒤를 이었고, 특히 세계 최초로 '고조선'의 전공자도 1970년대 소련에서 배출되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활동했던 유.엠.부짚(1932~2001)은 만주에서 서북한에 이르는 지역에는 한국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라는 점을 사회주의권에서 공식화한 데에의 역할이 컸다. 1982년에 출판된 그의 책 [고조선]은 한국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번역되어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다. 물론, 그 내용은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책조차 드문 1980년대에 이미 그의 책은 구 사회주의권에서 널리 소개되면서 한국사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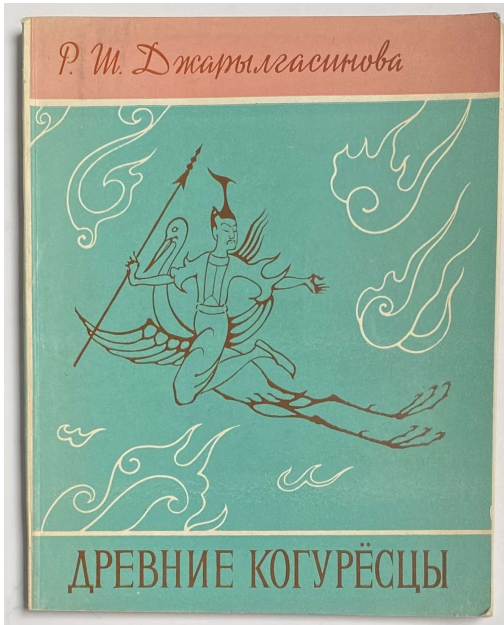
〈그림 3〉 유.엠.부짚의 책 고조선

부짚의 책이 나온 동기는 사실 중국과 북한의 고조선과 발해를 둘러싼 역사갈등의 여파였다. 북한과 중국은 1960년대 중반 조중(朝中)고고발굴대의 고조선 발굴 이후 완전히 갈라섰다. 중국은 문화혁명 직후 만주를 자신의 역사로 주장하며 추후에 동북공정으로 이어졌다. 북한도 주체사상을 내세우며 고조선을 앞세워 자신들만의 역사와 사상을 만들어갔다.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1974년에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서 북한의 고조선 연구가 소개된 것이다. 부짚은 고조선이 요령성 일대에서 서북한에 이르는 지역에 실재했으며 비파형동검문화가 그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한국 일부에서는 마치 부짚이 거대한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했다는 식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고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짚은 고조선이 거대한 제국이나, 이름만 남아있는 허상이 아니라 세계 여러 문명들과 똑같은 나라였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무엇보다 고조선이 한국사의 일부이며 만주 일대는 고대 이래 한국사의 일부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그의 책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볼 때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일한 책이고, 고조선에 관해서는 러시아 권에서 중국 대신에 한국의 견해

가 통설이 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고구려에 일생을 바친 자릴가시노바

중국과의 역사 분쟁 중심에 있던 고구려 역시 소련 시절 러시아 학자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러시아 고구려 연구의 기틀을 세운 로자 자릴가시노바(R. Dzarylgasinova 1931~2017)가 대표적이다. 그녀의 일생과 연구 자체가 고구려가 한국사의 일부임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릴가시노바가 이름도 생소한 고구려를 전공한 동기는 바로 그녀와 함께 살던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이차대전에 참전하여 돌아가시고 혼자 모스크바에 유학 온 그녀는 고향 카자흐스탄의 한국인들과 그들의 잊혀진 역사를 떠올리면서 고구려를 평생의 전공으로 삼았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러시아과학원에서 박사논문으로 『고구려인 - 역사-민족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러시아과학원 민족학연구소에서 평생을 근무했다. 그녀의 박사논문은 1972년에 『고대 고구려인-한민족의 민족사적 관점에서』로 출판되었다. 고구려 벽화에 남겨진 다양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고 한국사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위상을 다룬 것이다. 그녀의 책은 목차만 보아도 고구려에 바치는 헌사와 같다.



프롤로그: 부활하는 벽화

- 1장 수백 년간 덮여진 진주 같은 니트: 위대한 왕의 비석, 김부식이 본 고구려인
 - 2장 위대한 제국의 봄과 가을: 고구려국가의 기원
 - 3장 고구려인의 기원: 태양과 달의 아들, 하늘의 화살, 세장사와의 만남
 - 4장 경제와 물질문화: 오곡, 말의 머리를 한 흑적룡
 - 5장 정신문화: 시대를 초월하는 벽화, 검은 황새의 류트, 북두칠성에
- 에필로그: 한국 민족사 속에서 고구려인의 역할

〈그림4〉자릴가시노바의 1972년 저서 고대 고구려인

그녀가 출판한 책의 제목은 물론 에필로그도 마치 30년 뒤에 벌어질 동북공정을 예언이라도 하듯 “한국 민족사 속에서 고구려인의 역할”이다. 그녀는 수많은 한국사 관련 제자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고구려사의 정통성을 사회주의권에 뿌리내리는 기틀을 마련했다. 고구려를 한국사의 정통 속에서 파악하려는 그녀의 역사인식은 바로 함께 살았던 현대 고려인들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졌다. 고구려와 함께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생활과 풍속에 대한 100여 편의 논문을 남겼다. 그녀는 추상적으로 고구려를

한국사의 일부라 본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를 바로 고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발해, 하얼빈, 그리고 안중근

최근 안중근 의사의 일생을 다룬 김훈의 소설 “하얼빈”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만큼 안중근 의사와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표현한 작명이 있을까. 안중근 의사는 의거 8개월 전인 1909년 2월에 12명의 동지와 함께 연해주의 연추리에서 단지로 맹세를 했다. 연추리는 지금은 크라스키노라 불리며 동북아역사재단도 다년간 조사를 했던 크라스키노 유적이 위치한 마을이다. 나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사사업에서 현장 책임을 맡아서 조사하면서 현지의 상황을 누구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었다. 현지 러시아 주민들은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고려인들이 논밭을 갈아서 살았다고 얘기하곤 했다. 그리고 우리 조사팀은 실제 발굴을 통해 러시아인들은 찾지 못했던 발해성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고려인들이 밭을 갈았던 흔적과 수레바퀴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고려인들의 흔적이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부분의 연해주 발해와 옥저인들의 유적지 근처에는 거의 예외없이 고려인 마을의 흔적이 발견된다. 한민족이 살기 좋아하는 땅은 이천년을 넘어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연해주의 고려인들이 언제나 싼 값에 채소와 농작물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어놓았다고 기억한다. 그렇게 러시아 연해주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안중근 의사를 키워 낸 땅이다.

한편, 하얼빈이라는 도시도 우리에게 특별하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하얼빈을 거사지로 택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고 “한국 만세”를 러시아어로 “까레야 우라”라고 외치며 당당하게 잡혀들어갔다. 하얼빈은 러시아인들이 만든 도시였다. 원래 하얼빈은 한적한 어촌이었는데, 1899년에 러시아 동청철도를 만들면서 생긴 도시이다. ‘하얼빈’이라는 이름도 그 어원이 불명확하다. 당시 급하게 도시를 세우러 온 러시아인 건설 기사들이 현지인으로부터 흘러들은 지명을 자기 식대로 음차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20세기에 세워진 현대적인 도시인 하얼빈은 “동양의 파리”로 불리면서 소련의 볼셰비키에 반대해 살던 백계 러시아인들의 도피처가 되기도 했다. 하얼빈의 백계 러시아인들이 20세기 초반에 했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대사에 대한 연구였다. 당시 하얼빈에 모여든 러시아인들은 ‘동성문물연구회’라는 연구회를 만들어서 발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발해 이외에도 선비, 여진, 말갈 등 우리의 북방사와 관련된 여러 고대사를 활발하게 발굴하고 연구했다. 동성문물연구회에서도 발해를 담당했던 사람은 러시아 우랄 지역 출신이었던 포노소프(V. Ponosov 1899~1975)였다. 그는 일본의 만주침략이 한창이던 1931년에 발해 상경성에 대한 최초의 고고학적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하얼빈은 이미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에 포함되어서 무국적자인 그는 보호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비적들이 횡행하는 발해 상경성 지역에 목숨을 걸고 가서 상경성의 주요 지점을 발

굴하고 전체 평면도를 정밀하게 작성했다. 최초의 과학적 발굴이었다.

포노소프의 목숨을 건 동경성 조사를 훔쳐간 것은 일본의 관변단체인 동야고고학회(東亞考古學會)였다. 만주와 한국은 하나의 역사(만선사)라는 아젠다를 위해 발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동야고고학회는 포노스코의 자료에 기반해서 1934-35년에 발해의 상경성을 조사했다. 지금도 한국을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은 일본인들이 발해 고고학의 처음을 연 것으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시작은 일본이 아니라 하얼빈의 러시아 고고학자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침략’은 잘못이지만 일본이 발해 고고학의 기틀을 세웠다는 식의 논조를 위해서, 그리고 중국에서는 만주를 중국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데에 급급하며 포노스코를 비롯한 여러 러시아계 연구자들의 연구를 일부러 외면하는 바람에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감추어져왔다.



〈그림 5〉 안중근 의사의 단지결의 기념비



〈그림 6〉 크라스키노 마을-안중근의사와 발해의 역사가 서려있고 그 앞에는 동해가 이어진다.

소련의 학자들이 찾아낸 옥저

우리에게는 교과서에서 이름만 남아있는 옥저와 읍루는 6.25전쟁이 끝난 직후 소련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 옥저는 연해주 우수리스크 근처에서 고려인들이 살던 ‘차피고우’라는 마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너른 평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옥저인의 땅 바로 그 위에 2천년의 시간을 두고 구한 말 이 지역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마을을 이룬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제일 빠른 온돌과 곡식들이 발견되었다.

처음 이 유적을 발굴한 소련의 고고학자 오클라드니코프(A. Okladnikov 1909~1981)는 비추린이 번역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된 읍루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이후 읍루인들은 그보다 더 북쪽에서 발견되었고, 이들은 옥저 계통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과 여러모로 유사하다.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에는 너른 평야와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지리에 위치한다. 실제로 발해의 마을이 있었던 곳은 거의 예외 없이 그 이전에 옥저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된다. 그리고 발해의 마을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어김없이 고려인들이 정착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천년의 시간을 두고 옥저-발해-고려인들이 살던 곳이 바로 연해주이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의 땅이 되었지만 고고학은 현대의 국경과 관계없는 고대 우리의 역사를 보여준다. 2천 년간 감추어졌던 우리의 숨겨진 역사, 옥저는 70년 전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보름이나 달려와서 한 삽 한 삽 발굴한 그 토기편들과 함께 다시 부활한 것이다.

목욕물과 아기

이렇듯 러시아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역사는 200년이 넘으며, 고조선, 고구려, 옥저, 발해와 같이 우리의 북방사를 대표하는 나라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개방 이후 러시아가 한국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러시아 학계의 한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공동연구가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에 이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패권주의의 러시아로 인해 한-러의 학문적 교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은 중국과의 힘든 역사 전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는 근거였다. 지난 20년 넘게 한국의 학자들이 황량한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산간오지에서 매년 옥저와 발해의 유적을 조사하고 공동연구를 하며 힘들게 북방사와의 연결고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수고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역사의 일부이지만, 그 사료는 너무나 적다. 사료에는 이름만 간신히 전하는 이들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는 그 땅을 직접 조사한 고고학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만주 일대는 중국과의 역사 갈등으로 공동조사는커녕 제대로 유적과 유물을 참관할 수조차 없다. 우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북방지역은 오로지 러시아의

극동지역뿐이다. 두만강의 좁은 경계로 우리와 이어진 이 지역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의 절반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으로 단절된 한국의 역사를 북방으로 잇는 실낱같은 길이기도 하다.

이 가너린 역사의 끈이 지금 끊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 분쟁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도 전쟁과 사람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2개의 러시아가 있다. 패권주의 러시아와 우리 역사의 일부인 러시아를 동일시 할 수 없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소련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서방의 충들로 벌어진 전쟁에 반대를 하면서 러시아와의 학문적인 교류와 공동 작업을 중지한다면 결국 우리의 역사가 희생당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은 중국과 힘든 역사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과 자본, 여기에 만주를 실효 지배하며 조사를 독점하는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은 쉽지 않았다. 그나마 우리의 입장을 지탱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제정러시아 시절부터 확립해놓은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역사 체계, 그리고 우리와의 공동조사 덕분이었다. 러시아가 역사 분쟁에서 한국 쪽에 비중을 두는 저울추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 이 저울추를 잃어버리면 안 그래도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사관에 대응할 길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목욕물과 아기’라는 속담이 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까지 함께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패권을 차지하려는 러시아의 정치와 군사 작전에 반대하는 외중에 우리의 역사를 함께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리가 러시아 속의 한국 역사를 조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결코 쉽지 않다. 러시아 측과의 신뢰 및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굳이 비유를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자기나라 역사의 흔적이 있으니 조사하러 온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허락을 할까? 이러한 러시아의 양보는 지난 수십 년간 남한의 학자가 쌓아놓은 변함없는 신뢰와 상호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제관계란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십 년의 공든 탑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러시아라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 북방사를 지울 수는 없다. 러시아와의 학문적인 교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의 절반인 북방사를 위한 것이요, 또한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역사를 잇는 것이다. 작금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제 관계로 우리 역사의 유적을 황량하고 싸늘한 북방의 벌판에 버려둘 수는 없다. 좀 더 지혜롭게 우리의 역사와 외교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